

그리스도교의 선교 거점으로 변성한 아리마

일본에는 당시 다이묘라고 불리는 영주가 다스리는 여러 영지로 나뉘어 있었다. 규슈 지방을 다스리는 대부분의 다이묘는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선교사를 받아들였는데, 그중에는 그리스도교의 독실한 신자가 된 다이묘도 있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여 선교사들의 포교 활동을 지원한 다이묘를 ‘기리시탄 다이묘’라고 부른다. 규슈의 기리시탄 다이묘 중에서는 오무라 스미타다, 아리마 하루노부, 오토모 소린, 고니시 유키나가, 이 네 사람이 가장 유명하다.

아시아 지역의 포교 활동을 감독하는 예수회의 ‘순찰사’였던 알렉산드로 발리냐노 신부는 1579년에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나가사키 지방의 다이묘였던 아리마 하루노부와 만났다. 하루노부는 아리마 가문이 거주하는 히노에 성에서 발리냐노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리마 하루노부는 1587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테렌(신부) 추방령’을 내린 후에도 적극적으로 선교사를 받아들였고, 아리마 지역은 그리스도교 선교의 거점으로 변성했다.

기리시탄 다이묘의 영지에서는 영주를 따라 수많은 주민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 나가사키 지방에는 많은 교회당이 건립되었다. 아리마와 나가사키, 우라카미, 아마쿠사에서 세미나리오(수도사 육성을 위한 초등교육기관)와 콜레지오(성직자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가 개최되었고, 회화와 음악, 인쇄 기술 등 유럽 문화가 퍼져나갔다.

(삽화: 쇼지 요시타카)